



##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

- 공정위, 2024년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(AI) 시장 실태조사에 이어  
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구조·경쟁현황 등 시장실태 파악 실시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「**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**」를 실시한다.

**데이터**는 생성형 인공지능(AI) 시장에서 기반모델(Foundation Model) 개발을 위한 **필수적인 요소**일 뿐만 아니라, **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**으로서 맞춤형 광고·콘텐츠 추천,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,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.

그러나 **데이터**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,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, 과도한 데이터 수집·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침해 등 **다양한 경쟁법상 쟁점**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. 이에 따라 **주요 경쟁당국**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 있는 추세\*이다.

\* (예) 공정위 -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제재(24.10월),  
EU 집행위 - 메타(Meta)의 ‘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(Pay or Consent)’ 모델 제재(25.4월)

이에 공정위는 **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**을 파악하고, **불공정관행**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,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경쟁·소비자 이슈**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7조 제1항\*에 따라 **서면실태조사를 실시**한다.

\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**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** 등 의견수렴을 통해 **조사대상 및 조사항목**을 선정하였다.

이번 실태조사는 **총 7개 분야\***에서 데이터를 수집·보관·활용하고 있는 **주요 국내외 사업자**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,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여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.

\* ①온라인 광고 서비스, ②소셜 네트워크 서비스, ③이커머스(e-commerce), ④온라인 검색 서비스, ⑤온라인 메신저 서비스, ⑥앱마켓, ⑦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

주요 조사항목은 ▲사업 일반 현황, ▲사업자별 데이터 수집·보관·가공·분석·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, ▲7개 분야별 거래 현황, ▲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.

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. 아울러,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「**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**」를 발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현 (044-200-4327)
		담당자	서기관	강승빈 (044-200-4331)
			사무관	김민정 (044-200-432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